

이번에는 문법 요소 들어갈 차례인데요.

문법 요소는 두 강으로 나뉘서 공부해볼 거예요.

문법 요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종결 표현 있죠?

그래서 종결 어미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정해지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높임 표현.

그래서 상대 높임이 있고 주체 높임이 있고 객체 높임 있고.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우리는 좀 확인해봐야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제 표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이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것에 어떤 특정한 선어말 어미나 부사를 이용해서

시제가 언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또 거기에 더해서 동작상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새 파트.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사동하고 피동 그리고 부정 표현.

거기다 인용 표현은 지금까지 다 하면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인용 표현 같은 경우가 교과서에 실려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핫하게 여러 문제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를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뉘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종결 표현부터 봐줘야 되겠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보기 1을 보기 2와 같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로 정리했다.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화가 나와 있고 보기 2에 보면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결 표현의 경우에는 문장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평서문이 있죠.

평서형 종결어미 쓰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감탄문.

감탄형 종결 어미 같은 거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문문.

의문형 종결 어미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명령문.

명령형 종결 어미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청유문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의 형식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애네는 비요구.

즉 듣는 청자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네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요구의 맥락이 좀 다르다.

일단 의문문은 기본적인 거는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

명령문 같은 경우나 청유문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런데 이 행동을 요구하는데 어떤 차이가 난다?

상대 혼자 할 것.

그리고 청유문은 함께.

화자와 함께할 것을 청유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보기 2의 표에 보게 되면 총 4칸밖에 없어.

5칸인데 뭐 하나가 빠져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벌써 이 표만 봐도, 보세요.

화자의 요구가 있음에 뭐 들어가 있어?

3개 들어가 있는데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B가 의문문.

다음 C가 명령문, 그다음에 D가 청유문으로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행동 수행을 청자 단독으로 할 거냐,

화자와 함께할 거냐가 명시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 답이겠군요.

봤더니 A가 그 요구가 없다고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애나 애나 둘 중 하나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 ㄱ 문장에

선생님, 그런데 국화에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나요?

이거 의문문이죠, 상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종결어미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해요체의 종결어미를 이용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냥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해체인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해요체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2번에 보게 되면 ㄴ은 화자가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국화는 의의를 지키는 선비 정신을 상징했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애는 설명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죠.

애가 나와버렸네.

설명에 해당하는 평서문이잖아.

평서문에 해당하는 애 나와버렸어요.

그다음에 3번, ㄷ 보니까 우리 국화 향기 한번 맡아볼까?

우리 해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ㄷ 부분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므로

D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 D가 행동 수행 청자 화자거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ㄷ이 맡아 볼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문이에요? 청유문 아니에요.

이거 의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장의 형식은 뭐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되는 거라고요.

문장의 형식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종결 어미는 딱 정해져버려있어요.

평서형 종결, 감탄형 종결, 의문형 종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간이 보까지고 어미가 바로 르까가 나와 있는데

르까가 어떻게 청유형 종결어미가 됩니까, 의문형 종결어미지.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번에 보면 ㄷ은 화자가 청자와 함께 행동할 걸 권유하므로 D에 해당한다.

그러면 D는 화자가 요구하고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데

청자와 화자가 함께 할 걸 요구한다고만 명시되어있지

문장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의 형식을 생각하면

3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 무슨 문을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유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이후에 공부하겠지만 의문문의 경우에도

수사 의문문의 경우라면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죠.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그런 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에 보게 되면 ㄷ에 내일 아침부터 네가 화분에 물을 주도록 해.

하면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C에 해당한다.

좋아요.

이제 5번을 보시면,

ㄹ은 나도 국화처럼 향기가 그윽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야?

형태는 의문문이라니까요.

좋을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애도 형태는 뭐가?

똑같아, 르까나 을까죠.

여기는 받침이 있으니까 매개모음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도 바로 뭐다?

의문문이다.

그런데 기능을 물어보는 거야.

기능을 물어봤더니 이 둘 다 기본적인 의문문의 기능인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는.

예, 아니오에 대한 대답이거나

아니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아니에요.

일명 수사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번의 경우에도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뭐라고 봐야 될까요?

나도 국화처럼 향기가 그윽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기능적으로는 약간 감탄문의 기능을 좀 해주고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이 보기 ㄱ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앞부분부터 좀 읽어보면

의문문과 청유문 모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원래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령문이에요.

잘 보세요.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거, 명령문이야.

혼자 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때 함께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의문문, 청유문 또 함께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일단 봅시다.

기능을 보는 거예요.

1번 밑줄.

애들아 영화 좀 보자.

알았어, 떠들어서 미안해.

그러면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

애들아 영화 좀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듣고 알았어, 조용히 할게.

이렇게 나갔어요.

1번 가능.

2번, 환기가 필요하구나.

창문 좀 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행동을 해요.

3번, 잠깐,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나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다 안경을.

괜히 옆에 있는 친구가 애는 혼잣말처럼 이야기했는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가 짐작을 해봤더니 그다음에 B의 대사를 보세요.

너 혼자 거기서 뭐 하니, 빨리 나와.

무슨 소리야.

지금 A가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

B가 옆에 바로 붙어있으면 B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우리가 상황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B는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그러면 애가 뭐라고 했는지 듣지도 못했을 거야.

따라서 지금 이 A의 대사는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법 요소 부분에서

종결 어미의 그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보다

지금 당장 두 문제만 봐도 그냥 맥락상.

사실 이런 거 어디 들어가도 좋으냐면,

담화 쪽 파트에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4번에 방 청소해야 하는데 좀 비켜줄래, 라고 했더니

네, 나간다고 이야기하죠?

기사님, 저 신호등 앞에 세워주시겠어요?

네,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거 맞죠.

그다음 3번 가보도록 합시다.

간접 발화 행위.

우리가 이걸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로 나누잖아요.

이거는 문장의 형식인데 직접 발화 같은 경우는 바로 문장의 형식하고

의도가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간접 발화는 문장의 형식과 의도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명령문을 썼으면 명령문의 기능.

의문문을 썼으면 상대의 대답을 요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문문을 썼는데

상대의 명령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개는 간접 발화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접 발화 행위에 해당하는 걸 골라보자.

ㄱ, 공부 열심히 했니.

이거 무슨 문?

형태는 의문문.

그러면 상대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판정 의문이에요.

ㄴ, 문 좀 달아라.

명령형 어미 아라를 썼죠.

단 뒤에 아라를 썼습니다.

행동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휴, 엄마 나 바쁜데.

상대가 그 행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도는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문 좀 닫아라, 라고 명령문을 썼고

의도도 명령 의도였어요.

그 행위를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다음 ㄷ, 엄마도 바빠서 못 닫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평서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의사를 알았어요.

아참, 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어서 씻고 자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명령문이죠.

그래서 상대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예요, 내일 아침 숙제가 두 개나 돼서.

또 뭐가 있었지? 라고 이야기.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라고 했더니 ㅁ에 보세요.

12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

형태는 뭐? 의문문이야.

그런데 하긴 그렇네요,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의문문의 기능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 외에 나머지 의문문은 전부 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애네들이 직접 발화 기능이고

애네는 간접 발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지금 이 마지막 대사의 경우에는

전화를 내일 하라.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상대가 대답하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발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정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 4번 문제를 뽑아낸 이유는 사실 ㄴ 때문이야.

그 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결 표현 부분에서는 의문문 쪽.

이렇게 세 가지 나눠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명령문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니까?

상대를 눈앞에 두고 대면한 상태에서 명령을 내리는 직접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면을 통해서 읽는 독자에게

행위를 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간접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로 판단하는 겁니까?

직접 명령문에 기본적인, 대표적인 어미를 이야기하면 아라.

아라, 어라, 여라 이런 거였죠?

간접 명령문 기억 꼭 하셔야 돼요.

뭘 쓴다? (으)라를 쓴다는 거죠.

매개모음 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보세요.

보기 1에 ㄱ을 보면, 화자와 청자의 상호적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로 아라랑 어라 실현된다.

맞는 이야기.

다음 ㄴ, 청자가 없는 일방적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로 으라를.

ㄴ 바로 뭐예요? 이거 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자가 없는 상황.

즉 내가 글로 쓰려고 해.

그래서 글로 쓰고 그걸 읽는 독자에게 행동하게끔 만들고 싶어.

그때 뭘 쓴다는 거야?

으라는 쓴다는 거죠.

그다음 ㄷ에 보게 되면, 화자와 청자의 상호적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되 경계의 의미를 실현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ㄷ라.

~할라.

감기 걸릴라 하면 걸리 어간에 ㄷ라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으라가 아니라 ㄷ라예요.

이럴 때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ㄷ은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아니죠, ㄷ은 평서문에 속해요.

그래서 A의 경우 보세요.

이제 종결 어미를 찢어내보면 A는 청년들이여 꿈을 찾으라.

종결 어미 뭐야? 으라죠.

그러면 애는 뭐야? 간접 명령문.

즉 ㄴ에 해당하는 거.

다음 B, 철수야 그러다 넘어질라.

그러면 넘어질라 했으니까 넘어지다에서 넘어지까지가 어간이고

ㄷ라가 어미가 되죠.

애가 ㄷ에 해당하죠.

C, 영희야 이것 좀 먹어봐라.

먹어봐라는 어떻게 쪼개야 돼?

먹어보아라.

아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직접 명령문.

정답은 4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밑줄 친 부분이 보기 ㄱ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기를 가볍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 지식이 전혀 없으면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면,

여기서 내는 문제들이 뻔하다는 말이야.

종결 표현에서 낼 수 있는 거 뒤편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결 어미를 제대로 찢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의문문과 명령문.

이거 두 개만 제대로 구분하면 돼요.

청유문의 경우에는 문제 나왔던 거 보면

청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래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하기를 바라야 되는 건데

이게 화자 단독만 한다든지 청자 단독만 하게 하는 경우도

약간 일반적 청유문과 다른 기능이거든요.

그런 거 좀 출제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기에 의문문과 청유문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기 읽어볼게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행위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이었죠.

어디 보자.

아까 전에 풀었던 것처럼 어디 보자.

내가 어디다 챙겼나.

거기서 혼자 뭐예요?

어서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이게 왜 아까 전에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보면 너 혼자 거기서 뭐 하니.

아니면 거기서 혼자 뭐해요, 라고 하는 비대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사가 어디 보자, 내가 어디다 챙겼나.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제가 챙겨드릴게요, 제가 찾을게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어디 보자, 내가 어디다 챙겼나.

이렇게 나왔는데 손주가 잘 찾아봐요.

이렇게 나가면 예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할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내가 돋보기안경을 어디다 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옆에 이 친구에게 들으라는 이야기야.

좀 찾아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5번이.

잘 보셔야 된다고.

뭐의 대사를? 다음 대사를.

그런데 이 B의 대사가 혼자 너 거기서 뭐해.

안 들린다는 거야.

즉 이렇게 되면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할 의도가

조금도 없다고 다음 걸 통해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꼭 문장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담화 상황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6번하고 7번이 세트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높임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걸려들어가고 있어요.

먼저 높임 표현의 경우는 정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종결 표현 봤었고요.

이제 높임 표현 봅시다.

높임 표현에는 우선은 일단 상대 높임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모든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종결어미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상대에 대한 태도.

상대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이거 하나.

두 번째, 문장의 형식.

종결어미가 결정짓는 거 뭐라고요?

문장의 형식 결정지으면서

그리고 상대 높임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우리는 격식체가 있고 그다음에 비격식체라는 게 있었죠.

가장 높은체는 하십시오체.

줄여서 합쇼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전 정보를 보게 되면 합쇼할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합쇼라고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요.

하오체, 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이제 높임이죠.

결국 높임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

물론 이것도 단계가 이게 높고 이게 낮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게체.

그다음에 ~해라체, 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비격식체에서는 해요체와 해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문제로 낼 만한 건 애나 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쓴단 말이야.

선비체, 이런 거 장인어른체 이래서

좀 스타일이 예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이쪽은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거 낸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쉬운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ㅂ계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종결어미에 ㅂ계열이 걸려들어요.

그러면 애죠.

물론 아닌 예외가 없냐, 있어요.

이런 거 ~갑시다 이럴 때 ㅂ시다 같은 경우는 하오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출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비계열 받침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고민할 거 없이 합쇼체.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딱 봤더니 끝에 요가 다 달려있어.

그러면 당연히 해요체지.

요가 있으면 해요체지.

이제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두 개가 뭐야, 헛갈려요.

왜냐하면 둘 다 어쨌든 낮춤이잖아.

상대를 낮추는 건데 격식을 갖추는 해라체인지

아닌 비격식체의 해체인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일단 봤더니 낮추는 거 같아.

상대를 높이는 건 아니야.

그러면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는데

하계체 눈에 띈다니까요?

이리오게, 자네는 밥 먹었나?

이런 말투 있잖아요.

진짜 어르신들이,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할법한 그런 말투.

그게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어투 있잖아.

~했니 아니면 ~했냐 아니면 하냐, 나 집에 간다.

이런 거 어느체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나 집에 가, 이러면 어느 체야.

이때 요를 붙일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를 낮추는 건데 요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개는 해체.

왜냐하면 해체가 이 보조사 요만 붙으면 해요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를 못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 해라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쨌든 이렇게 상대를 높이는 방법들 쪽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 상대 높임법.

그다음에 주체 높임.

우리가 이 주체라는 건 뭐로 실현되는 것이다?

주어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을 따져보게 되면 주어를 높이기 위한 방법, 주격 조사 있겠죠.

~께서, 이렇게 해서 께서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누구가가 아니라 누구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

우리는 주체 높임법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죠?

-시나 (으)시 같은 걸 중간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었죠.

특수 어휘도 있죠.

어떤 단어의 경우에는 용언이 -시나 (으)시를 넣어서 높이는 방법도 있었지만

단어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다보다 높이는 거.

아버지께서 주무시다, 밥 먹다가 아니라 드시다나 아니면 잡수시다.

집에 있다가 아니라 어떤 거? 계시다.

그다음에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여기서 6개 기억하시면 돼요.

특수 어휘 6개.

이거 말고 용언 쪽에 특수어휘가 아닌 나머지 체언 쪽.

예를 들면 밥을 진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성함, 존함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생일을 생신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 잘 아는 거고

그다음에 선생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접미사를 붙여주는.

이런 건 일상적인 방식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로 출제되는 건 이런 재료를 알고 있어야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객체 높임법에서의 객체는 뭐로 실현되는 것?

부사어나 아니면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따져보면

첫 번째, 부사격 조사 중에 높일 수 있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던 거죠.

-에게가 아니라 -께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 어휘.

데리고 오다가 아니라 모시고 오다 할 때의 모시다 같은 거 있겠죠?

그다음에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 이런 거 있겠죠.

그다음에 여쭙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쭙다.

만나다 대신에 뵈다나 뵙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6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6번, 7번 보시면 일단 6번은 이거예요.

ㄱ, 간접 높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파생되는 정보였던 거죠?

우리는 주체를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높이는 대상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주체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것.

그러니까 주체와 관련이 있는 간접적인 걸 높이는 방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두 개를 든다면 사장님께서 예쁜 따님이 있으시다, 라는 방법.

사장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다.

이런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걸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짜임새 했잖아요.

주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로 가 있는 서술절 안은 문장 구성일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술어가 있다.

최종 서술어 있다가 나와 있는데 있는 거에, 잘 보세요.



직접 주어는 누구냐면, 애예요.

따님이예요.

딸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간접 주어가 누구냐면, 이게 누구 딸이냐면 사장님 딸이란 말이야.

사장님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딸 아이가 있는 거면 딸 아이가 있다고 해야지

예쁜 아이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있으시다, 라는 말을 왜 쓰냐고요.

이 딸이 누구 딸? 사장님 딸이기 때문에 사장님을 고려해서.

즉 간접 높임의 대상을 고려해서예요.

이걸 고려해서 뭘 쓴다? 으시, 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간접 높임법일 때는 특수 어휘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죠.

즉 우리 있다, 라고 하는 말의 높임말이 사실 계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예쁜 따님이 계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

있으시다, 이렇게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있다, 이것도 안 돼.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으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이용해서

간접 높임을 실현합니다.

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직접 소유물이라는

관형격 조사를 이용해서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넥타이가 그냥 사물이 아니라

사장님이 오늘하고 오신 그 넥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멋있다가 아니라 멋있으시다, 라고 말은 왜 굳이 썼겠어.

이것도 뭘 고려해서?

이 넥타이가 누구의 것이기에? 사장님의 것이기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상은 넥타이지만

여기서는 간접 높임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여기에 있는 사장님.

사장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사장님의 어떤 대상의 소유물.

대상과 있는 관계성 있는 누군가.

아니면 대상이면 어떤 신체,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높이는 방법을 바로 간접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6번에 바로 그 간접 높임법을 실현한 걸 골라보자는 거였어요.

정답은 2번이 답인 거죠?

교수님께서서는 책이 많으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체는 책이고 이거는 바로 교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5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홀문장으로 형성이 되었던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주어, 보어, 서술어의 구성.

마을 이장은 보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계가 안 맞습니다.

7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E를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

항상 서술어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가져오라한 거예요.

누가 가져오라 했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을 높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체, 가져오라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껴서 썼죠?

또 가져오라고 했어가 아니라 하시었어.

시를 지금 넣어준 거죠.

1번 맞습니다.

2번 가볼까요?

선생님께 자료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자료를 드리다.

즉 자료를 주다, 라는 행위는 내가 할 건데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높여주기 위해서 께를 썼고요.

또 주다 대신에 드리다, 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죠.

이래서 객체인 선생님을 높였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뵙다였어요.

네가 선생님을 뵙고, 직접 뵙고라고 했어요.

만나는 주체는 그 상대인 지수가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선생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주체를 높여야 돼, 객체를 높여야 돼?

객체.

목적어니까 객체인 목적어인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데

3번 답지에 보면 서술어에 주체를 높인다고 되어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현하는 재료는 좋은데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주체가 아닌 뭐로 가야 된다? 객체인이라고 나와줘야 합니다.

다음 D 부분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듣는 상대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준비했어가 아니라 준비했어요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 높임을 실현하기 위한 종결어 표현을 사용하고

또 5번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뭐가 되겠어요?

습니다 받침에 ㅂ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하십시오체라고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 쓰는 것.

격식체.

비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상황.

그리고 관계가 친근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8번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인데

세 가지가 이렇게 풀면 돼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실현되었는지 물어보는 문제일 땐  
상대부터 빨리 찾아 해결하세요.

일단 갔어요, 뭐가 나왔죠?

해요체.

그러면 일단 상대 높임 플러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답이 1, 4번 둘 중에 하나.

객체 높임은 일단 어차피 이때예요.

여기서 객체 높임은 뭐죠?

모시고, 라는 말이 있어.

즉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입니다.

그런데 주체는 누구예요?

공원에 간 주체가 영희야.

께서 썼나요?

가셨어요, 라고 했나요? 아니죠.

영희는 높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 재료가 없어요.

어떠한 재료도, 주체를 위한 재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체 높임은 마이너스로 실현하면 되겠죠.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높임 표현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질문에 대한 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ㄱ, 부사어가 나타난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

그러면 부사어가 나타난 대상을 높일 때 께 있냐 없나죠?

있어요, 없어요?

ㄱ에 있죠.

할머니께.

2번 갑니다.

ㄷ에서는 특수 어휘 사용하여 목적어 나타낸 대상을 높이면 돼요.

ㄷ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아버지를이 나왔는데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다, 라고 하는 어휘를 통해서  
목적어를 높인 거 맞죠, 아버지를.

다음 3번, ㄱ과 ㄴ에서는 종결 어미를 통해 높였다, 라고 했는데  
ㄱ에 무슨 체? 들이셨어요가 나왔으니까 해요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ㄴ에 뭐? 나가셨습니까니까 비 계열 하십시오체.  
이거 다 쓰이고 있는 거 맞죠.

다음 갑니다.

4번, ㄱ과 ㄷ에서는 주어가 나타난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께서 찾으라는 이야기죠.  
주어를 높이기 위한께서.  
ㄷ에서는 아버지께서이 있는데 ㄱ에 없어, 안 보여.

께서 보이지께서 안 보여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에 ㄴ과 ㄷ에서는  
주어가 나타난 대상을 높일 때 나타난 선어말 어미라는 건  
시나 으시가 있느냐의 문제죠?  
ㄴ에는 나가 시었습니다.  
즉 시가 들어가 있죠?

다음 5번에 얘기하시는데요, 라고 해서 얘기하는이 아니라  
얘기하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 가보도록 하죠.

10번의 (가)에는 상대를 높이면서 객체 높이는 걸 실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찾으라고? 상대부터.

1, 2, 3, 4, 5번까지 상대 높이지 않는 거 골라보자고요.

1번은 먹어요, 해요체.

2번은 맞습니다, 하십시오체.

3번은 갖다 드려, 해체죠.

3번 빼야지.

갖다 드려요, 이러면 해요체가 되는 거고

갖다 드려 이랬으니까 해체, 높이는 거 없어요.

다음 4번에 바쁘시죠? 이거는 준말이죠.

뭐의 준말? 바쁘시지요의 준말이죠.

결국 해요체입니다.

다음 5번, 만드셨어.

낮춤이죠.

만드셨어요, 이러면 해요체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3번하고 5번은 빨리 지울 수가 있고

1, 2, 4중에서 객체를 높이기 위한 걸 골라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2번에 모시다, 라는 말이 또 눈에 띄네요.

일단 재료에 익숙해져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재미있는데

보기의 자료를 본 학생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문제없죠?

2번도 확인해보세요.

진지, 밥의 높임이죠? 드리다 좋아요.

그런데 3번 한번 보면,

밥 먹듯이 라는 말을 떡 먹듯이로 대체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4, 5번을 보고 좀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보기의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할아버지께서는

거짓말을 진지 드시듯 한다.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다,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이 문장은 왜 어색하냐.

바꿨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밥 먹듯 하다, 라고 하는 게 관용구죠.

그러면 이 관용구는 이미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높임법을 넣어준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의 경우가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지라도 관형 표현에 높임을 쓰긴 어렵다.

또 4번에 밥을 먹듯.

밥 먹듯 하다는 말과 밥을 먹다는 좀 의미가 다르다.

그냥 밥을 먹는 거랑 밥 먹듯 하다.

이거는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많이 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러면 3번도 4, 5번이 맞다는 이야기는

관용구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떡 먹듯 하다, 이런 관용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지금 A, B, C, D 중에 맞는 걸 골라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문장 표현의 사례 보시면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다 하십시오체, 합쇼체 썼죠?

이런 경우는 청자가 당연히 화자보다 높다는 걸 이야기해요.

부등호 방향은 다 맞아요.

다음,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동생이 운동을 했다.

이거 무슨 체일까요?

여러분, 이거 문어체니까 그래서 쓰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운동을 오늘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아버지께서 운동하셨다?

이럴 수 있잖아요.

동생 오늘 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투가 있단 말이야.

구어체 중에서도 ~다로 끝내는 구어체 말투가 있는데

그러면 구어체 말투인 ~다는 뭐로 볼 거냐 이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동생 운동했다?

이렇게 나가면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는 없어요, 분명.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동생 운동했다.

이러면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 없이 간 거죠.

왜냐하면 동생 운동했어요, 했소, 했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 동생 운동했어.

운동 했어로 가면 상대를 높이는 의도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반말로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엄마 오늘 동생 운동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높임의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했다는 애냐 애냐를 고민하라는 이야기.

무슨 체일까? 했다 하면 다로 끝나는 건 해라체일까 해체일까.

해라체.

왜? 요를 못 붙여.

엄마, 오늘 동생 운동했다요.

이렇게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를 못 붙이는 거면 애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체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 특이해서 했네, 하였네.

이렇게 나가면 사위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여기의 하게체고

둘 중 하나로 고민하시면 돼요.

어찌 됐든 지금 두 번째 예문이나 네 번째 예문은

전부 다 화자가 더 높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아니면 친구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 A, B, C, D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전부 다 맞아요.

결국 뭐냐면, 화자와 주체의 관계만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이때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첫 번째 예문, 하셨습니다에서

하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거 주체가 화자보다 높은 거고.

또 세 번째,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는 선어말 어미 사용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주체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보도록 하죠.

주체 높임 탐구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보게 되면 ㄱ과 ㄱ'을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이에요.

간접 높임 방식.

ㄱ은 선생님이 직접 주어죠.

그래서 계시다를 써요.

그런데 ㄱ'을 보면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계시다.

직접 주어는 뭐다? 수업입니다.

그런데 수업을 계시다, 라는 특수 어휘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있으시다 정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설명이 바로 그 이야기고요.

2번에 보게 되면, 넉넉하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작은아버지께서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이러면

이렇게 서술절 안은 문장 구성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2번, ㄴ에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체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이므로

의도는 뭐다? 작은아버지를 높이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3번,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이러면 높임의 태도가 보이질 않아요.

왜? 간접 높임법이 실현 안 됐으니까.

지금 시나 으시를 안 썼거든요.

이제 4번 보세요.

ㄴ에 넉넉하시다나 ㄷ에 하신다가 직접 높여주는 대상은 동일하다.

ㄴ의 경우에 넉넉하시다가 높이는 직접 주어는 살림이고

간접 주어가 작은 아버지예요.

그에 반해 ㄷ은 식사를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작은 아버지예요.

따라서 직접 높임의 대상은 ㄴ의 경우 살림, ㄷ의 경우에는 작은아버지.

서로 다릅니다.

5번에 ㄴ과 ㄷ에서 만약에 께서는 안 썼다 칩시다.

즉 ㄴ에서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작은 아버지를 높이는 의도를 넉넉하시, 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ㄷ도 마찬가지로.

작은아버지께서, 지우고.

작은아버지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라고 해도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 쪽에 시 때문에

주체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랑

작은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 중에 뭐가 맞나.

둘 다 맞아요.

즉 높임법의 문제는 이런 주격 조사를 높여서

께서를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그냥 높임의 정도 차이인 거지

이게 비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14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에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ㄱ에 보면,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나와 있어요.

ㄴ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종결어미를 통해 듣는 상대를 높이는 거 하십시오체.

ㄴ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데 저희를 쓴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보통 저희 집, 저희 학교, 저희 엄마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니까?

상대를 고려하여 낮추는 거죠.

겸양 표현을 쓴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한 건데

아버지를 높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점원에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를 낮추므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라고 해서 그 저희라는 표현을 쓰면서 낮춤으로써.

스스로가 낮아짐으로써 어떻게 한 거죠?

듣는 청자인, 이때는 점원이 되겠죠?

점원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에 ㄷ, 선물로 드리시면.

이런 건 잘 골라내야 돼.

재료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반영됐어요?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실현됐죠.

그런데 그냥 드리면이라고 안 하고 드리시면이라고 해서 시도 넣었어요.

그러면 시는 또 뭐에 해당해?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객체를 높여주고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행위의 주체까지도 함께 높여준다는

3번 설명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이 3번 같은 답지가 되게 좋아요.

다음 4번, 아버지께서 어깨가 넓으시다.

그러면 주어, 주어, 서술어.

간접 높임이죠?

그래서 넓으시다, 라고 해서 으시를 지금 사용함을 통해 뭐를 높여준 거다?

어깨.

그런데 그 어깨를 직접 높임으로 간접 높임의 의도를 보여준 거고

그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함인 거죠?

4번 설명도 맞는 내용.

다음 5번에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

역시나 어르신이나 모시다, 라고 하는 말을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높임의 의도를 보여줬고요.

그다음 15번 가보도록 하죠.

1번부터 틀린 부분만 한번 잡아볼게요.

1번 ㄱ, 이제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는구나 쓰게 되면 상대 높이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누나가 동생한테 하는 말인데.

는구나는 무슨 체일까요?

~하는구나 할 때.

는구나요 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체? 해라체야.

그래서 여기 어쨌든 1번은 는구나를 사용해서

상대인 동생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2번,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계신 주체가 누구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계시다를 썼다.

2번 틀린 거 뭐 때문에?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나왔어야 돼.

3번에 아버지께 전화드리다.

께는 뭐라고요? 객체를 높여주기 위한 부사격 조사예요.

따라서 3번은 께를 이용해서 객체인 아버지를.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다음 4번에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께서는 주격 조사니까 주체인 아버지라고 나왔어야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보죠.

16번은 좀 추가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골라준 건데  
지금 보기 1을 한번 보시면, 호칭어니 지칭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예절과 관련지어서는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호칭어라는 게 있고 지칭어라는 게 있는데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호칭어는 그 대상을 직접 부르는 말인 거죠.  
말 그대로 부를 호 자니까요.  
지칭어는 그 대상을 다른 제3자에게 일컫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라고 불렀어.  
이게 호칭어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려고 할 때  
우리 여보입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람입니다, 안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와이프.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사실 표준 예절에서는 안 맞아요.  
외래어를 굳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마누라, 이런 것도 옛날에는 높임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높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어쨌든 이런 게 호칭어고 이런 게 지칭어예요.  
가령 또 예를 들어 이런 관계.  
여성인데 자기의 오빠가 있고요.  
오빠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해서 들어온 이 집 며느리가 생긴 거야.  
그런데 자기보다 손윗사람이잖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새언니, 이렇게 불러요.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래서 새언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자기 엄마한테 새언니 흉을 보려고 해.

엄마, 새언니가 하면서. 이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올케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올케 들어보셨어요?

올케는 자기보다 손아랫사람.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또 올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좀 복잡해.

그런데 이런 거예요.

새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지칭할 때는 우리 올케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칭어와 지칭어의 차이인데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1번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결혼식장이죠.

해현이가 삼촌 어서 오세요, 좀 늦으셨네요.

삼촌: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다들 오셨니?

해현: 아니요, 차가 밀리는지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누구 할머니죠?

자기한테 할머니죠.

삼촌한테는 어머니가 되는 존재고.

그런데 할머니라고 이야기한 건 자기 입장에서 뭘 쓴 거야?

지칭어를 사용한 거죠.

지금 할머니를 부르는 말은 아니니까.

그다음 삼촌 ㄴ,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이 삼촌보다 누나예요.

아, 외삼촌이 아니니까 형수님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형수님이 되겠죠?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삼촌이라고 하자.

외삼촌도 부를 때는 그냥 삼촌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쨌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형수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삼촌이 여기에 있는 이 해현이 어머니의 오빠가 될 수도 있는 관계고

도련님이나 아주버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는 건

일단 어머니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니를 통해서 특수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ㄷ 보시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3번, ㄷ에서는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누구? 할아버지.

그래서 조사를 이용했다.

목적격 조사를 높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기 지금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를 대신에 어떤 조사를 이용해야

그 목적어를 높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뭐를 통해서?

데리고라고 안 하고 모시다, 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한 방법을 썼죠.

4번 ㄹ에 너희 어머니께서.

이거는 지금 해현이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해현이 입장에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지칭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다음 5번에 ㄱ,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요체를 통해서 상대를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요.

17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말을 하면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씀이라는 어휘 있잖아요.

말의 높임으로도 쓰이지만,

말의 낮춤의 의도로도 쓰인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기의 말을 낮춰서 겸양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번은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생님을 높이는 데 말씀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를 낮추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위가 주체가 뭐예요? 드리는 행위.

즉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의 주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행위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말을 낮추어 설명했다, 말했다.

이렇게 나와야 적절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말씀을 사용했다.

이렇게 썼으니까 말씀은

결국 말의 낮춤을, 겸양을 이용해서 썼다는 건 좋잖아요.

그건 가능해도 결국 앞부분에 주체인 선생님은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18번의 경우에는 ㄱ과 ㄴ이 모두 실현된 것.

즉 ㄱ에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를 들어 계시다 있으니까 이 6개를 외우고 있으면 되죠.



이 6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ㄴ에 보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걸 높이는 명사.

예를 들어 진지, 밥을 진지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ㄴ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임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명사가 뭐 있는가.

보이는 건 일단 1, 2, 3번 보이는데요.

1번에 어디 보이죠?

이름이 아닌 성함.

2번에 어디 보이죠?

집이 아닌 댁.

3번에 뭐 있죠?

나이가 아닌 연세.

4, 5번은 그런 명사는 안 보여요.

따라서 1, 2, 3번 중에 결정을 지으면 될 텐데

ㄱ이 실현된 건 3번, 잡수시다가 실현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높임 표현까지 봤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시제 표현하고 상표현인데

시제나 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시다, 아직까지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시제, 상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선어말 어미가 주로 시제를 결정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선어말 어미가 그렇게 시제를 완벽하게 딱 정해놓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맥을 고려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19번 볼게요.

ㄱ, 과거 시제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있다.

이 개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시제 이야기했을 때 항상 기준은 우리 발화시를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발화시가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시가 먼저 벌어졌는지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건시가 내가 말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앞에 벌어진.  
어제 벌어지거나 몇 시간 전에 벌어지거나  
그래서 이거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과거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치하는 거.  
나 지금 씻고 있어, 이러면 전화를 받으면 씻고 있어.  
이러면 말하는 시간과 그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일치하는 거.  
그런 걸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 내일 영화 볼 거야.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미래라고 한다는 거죠.  
기본형은 알아요.  
우리 과거 같은 경우는 았이나 었 또는 대과거의 았, 었, 었었.  
선어말 어미로 이런 거 쓰는 거.  
현재 같은 경우는 는, 이런 거 사용하고.  
미래형 어미로는 -할, 하겠.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는 -하였더라 할 때 이 더 같은 것도 회상.  
기본적인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붙어서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도 잡아줬던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완료가 됐는지.  
그러니까 완료 상황인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완료나 진행인 부분은 보조용언을 통해  
주로 실현이 되는 그런 구성인데요.  
그래서 19번을 보면, ㄱ에 과거시제 이야기를 했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거 다 설명 맞아요.

그리고 았이나 었을 통해 실현된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문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문 보세요.

ㄱ, 너 이제 집에 오면 혼났다.

그러면 너 이제 집에 오면 혼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너 이제라는 이 부사가 시간은 이미 정보를 주고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래서 혼났다 같은 경우에는 혼나+았+다.

결국 이게 있는 거죠.

았은 있어요.

그러나 이때의 았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시제가 아니라 뭐로 볼 수 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성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던 것이고요.

2번에 았, 았 또는 았었.

발화시보다 사건이 앞서 벌어진 상태, 단절성의 느낌.

그래서 2번에 보면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 라고 했죠.

았었, 지금은 그 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았었 보이구요.

그다음에 3번 ㄷ, 더라.

과거 회상, 경험 회상 이런 거 나와 있죠?

다음 ㄹ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ㄴ이 쓰여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방학 동안 읽은 할 때 은이 보이죠?

그러면 이 읽은 책, 차이가 뭐니까?

읽은 책이라고 했을 때 선어말 어미가 시제를 나타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읽은 책, 이러면 과거.

읽는 책 이러면 현재.

읽던 책 하면 과거.

읽을 책 하면 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실현되므로 해서  
시제를 결정짓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ㅁ 보게 되면 던이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여기서 쓰인 거죠.

그래서 여름에 푸르던이 쓰였던 거니까

지금은 푸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았, 었의 기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A는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텔레비전만 보았어.

과거 이야기죠?

2번, 선물 사러 갔어, 어제.

선물 사러 가았어 해서 았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갔어에 가았어.

이렇게 해서 3개로 형태소 끊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이제 3번에 B 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즉 단절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성이 있는 걸 설명해준대요.

문장 보세요.

3번, 감기 걸렸다면? 물어봤더니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잠겼어.

10년 전에 목이 잠겼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 끝난 거고

지금은 목이 풀린 상태.

그런데 아직까지라는 단서가 또 앞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줄 수 있어요.

4번이 문제가 됩니다.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그랬더니 아주 나빴어.

지금 소풍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쁜지 몰라요.

이미 끝난 사건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B가 아닌 A로 가줘야 되는 거죠?

다음 5번이 바로 그겁니다.

너 오늘 바빠? 라고 했더니

음,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라고 하면  
자다에 자았어.

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C와 관련이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이 사건시.

동작상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상의 진행이나 완료를 이야기하는 거까지 함께 문제가 나와 있어요.  
먼저 가겠습니다.

ㄱ,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다.

고 있다가 나오면 지금 동작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동작의 진행.

그랬더니 네, 필요 없는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라고 해서  
았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 내놓은 사건은  
지금 내가 말한 발화시보다 앞서있는 게 맞죠.

다음 3번 갑니다.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라고 했어.

줘 버리다, 주어버리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가면 주+어 버리+었.

형태소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재료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잡는다면.

예를 들면 이 버리다가 나오면 이거 뭐예요?

완료예요, 진행이에요?

먹어버리다.

완료예요, 진행이에요?

완료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이면

일단 동작상으로 따졌을 때는 완료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어버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언제 벌어진 거죠?

과거에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쥐버린 사건은 이 었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므로

3번 답지에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서는 게 아니죠.

사건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이 지금 잘못 이야기했다.

지금 이야기한 건 ㄷ이니까.

그런데 ㄷ도 뻔하죠.

얼마 전에 산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미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3번이 지금 틀린 거고 4번은 완결성.

즉 완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료 이야기한 거 맞고

시제로 따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는 맞아요.

그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공부할 친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관형사형 어미로 ㄴ을 썼죠.

공부하, 밑에 ㄴ.

이 ㄴ은 어떤 기능?

앞으로.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5번에 발화시가 사건시 앞선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까지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시제 표현까지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 문법 요소 중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피동사 쪽이거든요.

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